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8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2024년 4월)

2024. 5. 8.

담당자 |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호감도, 주변국 지도자 중 가장 높아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호감도는 20도 이하 낮은 수준에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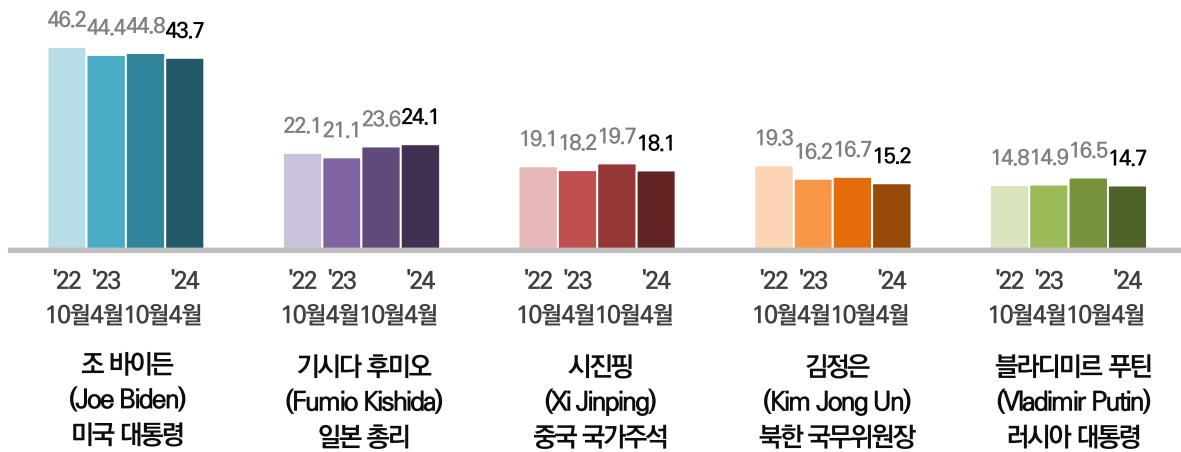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국가(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호감도는 30도 이하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 호감도를 묻는 것과 동일한 감정온도 방식(0도 ~ 100도, 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호감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43.7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24.1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8.1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15.2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4.7도) 순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10월 조사결과와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4개국 정상의 호감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24.1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나 2년 전 첫 조사(13.8도) 대비 10도 이상 높아져서, 조사 대상 지도자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반면 시진핑 국가주석, 김정은 국무위원장, 푸틴 대통령의 호감도는 20도를 넘지 못해 호감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 상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호감도, 주변국 지도자 중 가장 높아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 호감도는 20도 이하 낮은 수준에서 정체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2. 10. 28 ~ 31 // 2023. 4. 21 ~ 24 // 2023. 10. 27 ~ 30 // 2024. 4. 18 ~ 22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에 대한 감정온도 응답분포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 (0~24도)	약간 부정적 (25~ 49도)	부정적	중간 (50도)	약간 긍정적 (51~ 75도)		긍정적	계
						매우 긍정적 (76도 이상)	긍정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1000)	26	17	43	29	15	13	28	100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	(1000)	58	15	73	16	7	4	11	100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1000)	68	16	85	10	3	2	5	100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1000)	76	11	87	8	3	3	6	100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1000)	77	11	88	6	2	3	5	100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4. 18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대 높아질수록 바이든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호감도도 높아져 70세 이상의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60.4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60대의 호감도는 49.3도, 70세 이상의 호감도는 60.4도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도 60대(29.4도)와 70세 이상(38.0도)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연령대별 큰 차이는 없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문다.

이념성향별로 나눠보면, 보수층이 진보층이나 중도층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이는 국가호감도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보수층의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51.8도로 진보층(39.6도)과 중도층(39.5도)보다 10도 이상 높고,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 또한 보수층(33.5도)이 진보층(17.2도)이나 중도층(20.9도)에 비해 10도 이상 높다.

연령대 높아질수록 바이든 대통령과 기사다 총리 호감도도 높아져
70세 이상의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60.4도

(단위 : 도)

사례수 (명)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Fumio Kishida) 일본 총리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전체	(1,000)	43.7	24.1	18.1	15.2
성별					
남자	(494)	45.7	26.2	18.1	14.7
여자	(506)	41.7	22.1	18.1	15.6
연령					
18~29세	(159)	36.2	18.9	8.6	11.3
30대	(149)	37.2	17.9	9.9	10.0
40대	(177)	39.5	20.4	17.9	16.9
50대	(196)	41.1	21.5	21.0	17.7
60대	(173)	49.3	29.4	23.9	16.9
70세 이상	(146)	60.4	38.0	26.4	17.0
학력					
고졸 이하	(428)	48.8	29.0	22.7	17.1
대재 이상	(572)	39.9	20.5	14.7	13.7
이념성향					
진보층	(307)	39.6	17.2	19.6	18.9
중도층	(323)	39.5	20.9	18.0	14.4
보수층	(339)	51.8	33.5	16.8	12.0
없음/모름	(30)	39.6	23.7	19.0	20.5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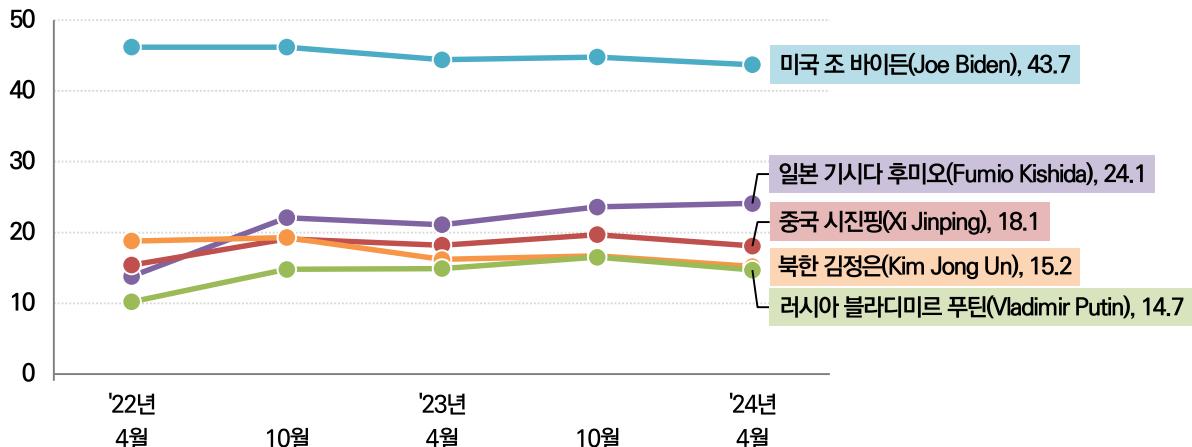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4. 18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 호감도 변화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 호감도 변화

(단위 : 도)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Fumio Kishida) 일본 총리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2022년	4월	46.2	13.8	15.4	18.8	10.2
	10월	46.2	22.1	19.1	19.3	14.8
2023년	4월	44.4	21.1	18.2	16.2	14.9
	10월	44.8	23.6	19.7	16.7	16.5
2024년	4월	43.7	24.1	18.1	15.2	14.7
평균(최근 1년)		44.3	23.9	18.9	16.0	15.6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비고: 2022년 이후 각 지도자별 최고점은 파란색, 최저점은 빨간색으로 표기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국가 호감도보다 낮아 일본 호감도와 기시다 총리 호감도는 16.3도, 미국 호감도와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15.4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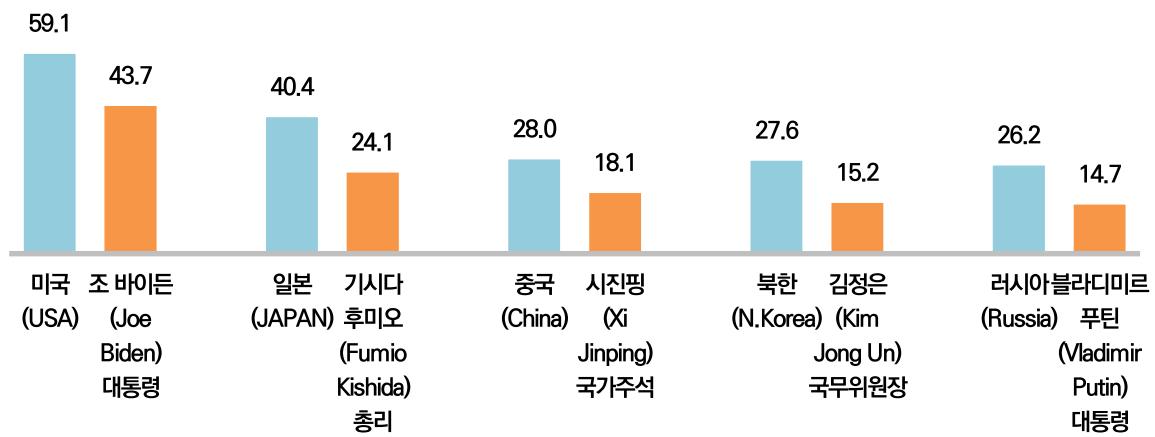
지난 4월 초 진행했던 5개 국가별 호감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개 국가 모두 국가에 대한 호감도보다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다. 이러한 경향은 각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2년 4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크다. 4월 조사에서 미국 호감도는 59.1도로, 국가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지도자 호감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43.7도에 그쳤다. 둘간의 차이는 15.4도이다. 일본 호감도 또한 이번 조사에서 역대 최고치인 40.4도를 기록했으나,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24.1도로 16.3도 차이가 난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 또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기는 하나, 아직 일본 국가 호감도에 미치지는 못한 상황이다.

국가 호감도가 20점대로 낮은 중국(국가 호감도 28.0도, 시진핑 주석 호감도 18.1도), 북한(국가 호감도 27.6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 15.2도), 러시아(국가 호감도 26.2도, 푸틴 대통령 호감도 14.7도) 또한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국가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10도 가량 차이를 보인다.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국가 호감도보다 낮아 일본 호감도와 기시다 총리 호감도는 16.3도, 미국 호감도와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15.4도 차이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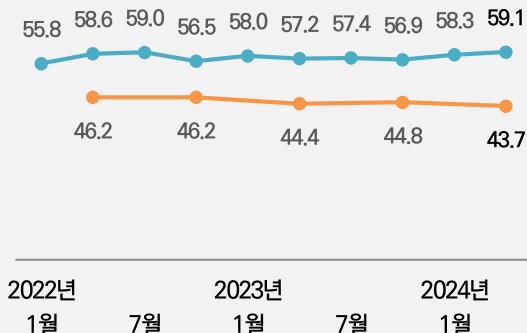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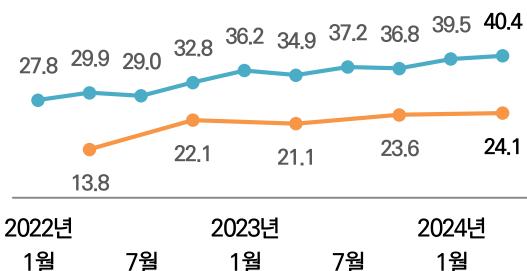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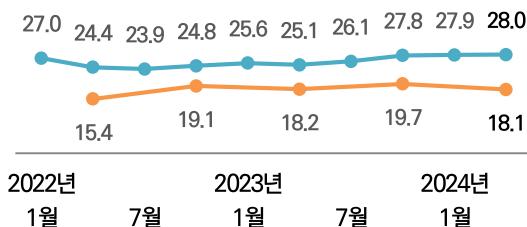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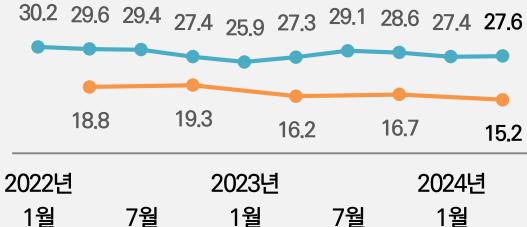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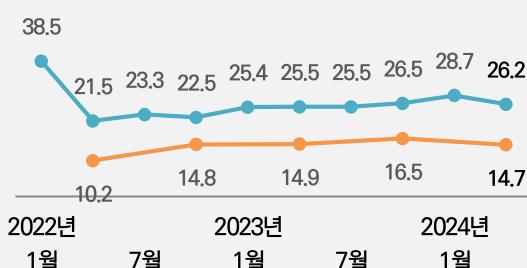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주변국 호감도 - 2024. 4. 5 ~ 8 //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 2024. 4. 18 ~ 22

국가 및 국가 지도자 호감도 비교(2022년 이후)

(단위 : 도)

■ 국가 호감도(Favorability toward the country)
 ■ 국가 지도자 호감도(Favorability toward the leader)

미국(USA),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일본(Japan),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총리중국(China),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북한(N.Korea),
김정은(Kim Jong Un) 국무위원장러시아(Russia),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3월 기준 약 92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26,846명, 조사참여 1,42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7%, 참여대비 70.0%)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4월 18일 ~ 4월 22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